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음 2월 22일)

전주매일

비수술적 착추관절 통증 재료 전문

지네인 신경외과 의문

원장 곽 경 문 값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월 6번지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옥정호 수면이용 수질 영향 '미미'

전북도, 용역 결과 발표

정읍시 급수체계 변경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용담댐에서 정·원수 공급 3가지 방안 제시

옥정호 갈등해결을 위해 전북도가 정읍시, 임실군과 함께 추진한 '옥정 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정읍시 급수체계 변경 타당 성 검토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성 검토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옥정호 수면이용 계획에 대한 조사와 수면이용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및 수질을 예측한 결과는 오염부하량(BOD)은 무동력이용 시 0.005% 증가, 동력이용 시 0.008% 증가되어, 실제 옥정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수질예측결과는 무동력선 및 동력선이용 시 수질은 영향이 없음 으로 분석됐다.

특히, 옥정호 상류에서 오염원이 유입될 경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읍시(추령천)에서 발생한 오염원은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칠보발전취수구에 영향을 주나, 임실군(섬진강 상류)에서 발생한 오염원은하류부로 확산되어 운압취수구에 미미하게 영향을 주는 반면, 수계(물의흐름)가 다른 칠보발전취수구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시 급수체계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는 도내 취수원을 활용한 다각적인 용수 공급에 대해 검토, 용담댐에서 정수 또는 원수를 공급하는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1안은 고산정수장(용답댐)에서 생산된 정수를 송수관로로 연결(목천대교 ~태인면사무소, 38km)하여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섬진강 광역상수도의 취수원인 옥정호의 수질사고를 대비하고 전라 북도권 광역상수도의 상수도시설 안 정화를 위하여 전주권, 섬진강권 및 부안권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는 비상 연계관로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전주 권 광역상수도 분기점인 김제분기점에서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는 태인분기점까지의 수리검토를 시행한결과 복선화관로 관경은 부안댐 광역상수도 분기전까지 D1,200mm, 이후태인 분기점까지 D1,000mm로 계획하였으며, 수두차를 고려하여 가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제2257호

2안은 역시 고산정수장(용담댐)에서 생산된 정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삼 례만경강교~태인면사무소, 35㎞를 연 결하여 각 가정에 정수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삼례교차로 인근에서 송수관로를 분기하여 섬진 강댐 광역상수도의 급수체계를 전주 권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금회 송수관로의 분기점은 정읍시와 의 최단거리를 고려하여 전주권 광역 상수도 금구분기점 인근의 D1800mm 에서 분기하는 것으로 계획, 광역상수 도 배분계획(안)의 배분량을 기초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승구관로 수리검 토를 시행한 결과 분기관로는 D1,000mm로 지형여건을 고려해 대율 자수지 인근에 가압시설을 설치하는 점이다

3인의 경우 용담댐에서 직접 원수를 취수하여 도수관로 63km를 통해 산성 정수장으로 원수를 보내, 산성정수장 에서 정수처리한 후 각 가정에 공급 하는 방안이다.

전북도 관계지는 "취수원 다변화 등 상수도시설 안정화를 지향하는 환경부 정책과 도내 광역상수도 복선화계획 등과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한 분석 중이며, 지역간의 갈등을 원천해결하고 광역상수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최적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 INDEX

4면 - 전주한지산업 활성화 '맞손'

5면 - 전북교육청사 놀이터 개장



"대한독립 만세"… 풍남문에 울려퍼진 만세삼창

국가보훈처(전북동부보훈지청)가 주최한 독립의 횃불 전 국민 릴레이 재현행사가 27일 전주시 풍남문에 서 실시된 가운데 유족 및 관내 기관단체장, 학생, 시민들로 구성된 500여명의 관계자가 풍남문 퍼포먼스

공직자 올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공개대상자는 도내 공직유관단체장, 시 · 군의원 등 202명 평균 재산 6억200만원, 전년대비 증가자 121 · 감소자 81명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 의원 등 관할 공개대상자 202명에 대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28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전북도 공직유관단체장 6명, 시·군 의원 196명 등 202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현황이 모두 포함되

도지사, 행정부지사, 도 의원(39명), 시장·군수(14명) 등 공개대상자 55 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 관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 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현황

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시군 의원 등 전북도 공직자윤리위 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202명의 공 개현황은 전북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 산공개대상 202명의 재산규모 및 증 감현횡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 균 재산은 6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1,945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재산공개대상자 202명중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가 74명 (36.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1억원 미만이 44명(21.8%), 20억원 이상 보유자도 16명(7.9%)이다.

재산 증가지는 121명(59.9%), 재산 감소자는 81명(40.1%)으로전년도 보 다 재산 증가지는 9.0% 감소, 감소자 는 8.97% 증가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은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 시가격,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 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 다

감소사유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 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딸)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으로 신고됐 다.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자전원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재산 성실 신고 여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증 식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고, 재 산을 거짓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 태료 부과,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예 정이다

박해산 도 감사관은 "재산의 취득과 상실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정 한 심사로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 하 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43개국 60여명 해외 언론인 새만금 · 고군산군도 방문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국가 이미지 제고와 저널리스트의 역할 논의 등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세계기자대회(World Journalists Conference) 일환으로 세계 43여개국 60여명의 해외 언론인들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새만금을 찾았다.

특히, 이번 '2019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남미와 아프리카국가 언론인들의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보임에따라 향후 환황해권의 경제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새만금이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세계 언론인들은 27일 오후 새만금 개발현장을 찾아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예정지를 비롯해 해양 데저관광의 잠재력을 지닌 고군산군도 등 새만금지역에서 현장취재활동을 벌이며 대한민국, 전북의 미래 발전상을 내다봤다. /김진성기자

